

행동하는 믿음 I.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에베소서 6:16-17]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 전신갑주 -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으라.

[에베소서 6:11-13]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11절 : 교회의 정체성이 잘 나와 있다. 교회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영적전쟁)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한다.

* 12절 : 우리의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의 정체성을 밝힌다.

* 13절 : 영적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선명하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렇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쓰러트리는 것이다. 주저 앉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 아담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결국 아담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말씀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영적전쟁을 통한 승리의 결과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가장으로, 부모로, 자녀로, 일터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를 찾아야 한다.

2. 불화살

[에베소서 6:16-17]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 중에서 승리하는 길은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다. 그 중에 '믿음의 방패'를 주목해야 한다. 16절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나온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함이다. 불화살은 무엇인가? 사탄의 공격 무기이다. 불은 태워 버리는 것이다. 불은 '뒤로오'라는 뜻이다. '태우다, 작열하다, 분노, 슬픔 등으로 자극되다' 등의 뜻이 있다. 이 불의 출처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사탄은 무엇을 태워 버리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7:9절 말씀에 정욕을 불로 표현했다. 정욕으로 태워 버린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탄이 태우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불화살이 날아 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말씀 하신다. '믿음'이 단서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을 태우려고 불화살을 던지는 것이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 불안함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 때부터 환경과 상황에 짓눌리게 된다.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 사로잡는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리고 앞에서 불화살을 맞으면 여리고 라는 환경 앞에 짓눌리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의심의 정탐꾼들은 불화살을 맞았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멸되었다. 그 자리에 부정적, 두려움의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나아가지 못했다. 주저 앉아 버렸다. '서지 못했다'

3. 믿음의 방패

구체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 방패는 막는 무기이다. 보호하는 무기이다. 사탄의 불화살은 '불신'의 화살이다. 그 불신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성품적 믿음'과 '은사적 믿음'이 있다. 성품적 믿음은 '경작'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이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은사적 믿음이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시는 믿음이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시는 믿음이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사역을 위해 주시는 믿음이다.

*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터 오는 믿음

[갈라디아서 5:22]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충성이라 번역 되었지만 충성됨은 'faith' 에서 온 것이다. 믿음이 가득한 상태가 충성됨이다. '피스티스'라는 말이다. '신용, 확신 (하심을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 종교적 확신), 신뢰, 신실함, 꾸준함'을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구원하실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사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의 방패가 결국 사탄의 의심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4.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이 말씀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사탄의 의심의 불화살을 '믿음의 기도'로 막아내는 것이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 권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교회에게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 (묶고 푸는 권세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

5. 말씀을 선포하라.

믿음의 생성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선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이다. 말씀으로 선포하여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오는 유익이 있다.

- (1) 중언부언 하지 않는다.
- (2)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 (3)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붙잡는다.

(4) 실상이 되는 믿음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실상 (집문서 - 후파시스타스) : 집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나에게 있다.

말씀의 속성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실상이 될 것이다. 현실이 될 것이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